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로 지방 살려야”

서남권 메가시티 정책토론회

강 시장 “수도권 1극 구조 깨야” 5대 도시권 초광역경제권 제시 조경태 “거대 도시공동체 필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를 통해 1극 구조를 다극구조로 바꾸고, 지방의 도시 경쟁력을 키워 대한민국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4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연구원·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토론회 및 사전 환담에 참석해 “지역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수도권 1극 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서울-광주-부산 3축을 중심으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위원장, 권은희 국회의원,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날 도시이용 인구를 늘리고, 주변 도시를 키워 도시 간 연결과 연합체계를 구축하는 ‘네트워크 도시 중심의 서남권 초광역경제권 메가시티’를 제시했다.

5대 도시권(광주광역시·전주광역시·

도시권·새만금권·서남해안권·광양만권) 중심의 광역 교통망·생활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확장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강 시장은 “최근 정치권의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는 서울의 행정구역 확장 문제로 메가시티와 구별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김대중 정부의 지방자치시대,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문재인 정부의 초광역협력,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까지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의 핵심은 수도권 1극 구조를 다극구조로 바꾸면서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경태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교통, 경제, 문화가 연결되는 거대한 도시공동체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도쿄-오사카-나고야의 성공사례 등이 있다”며 “광주가 메가시티로 더욱 성장 발전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나가자”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전략을 바라보는 지역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다.

조선훈 한 교수는 “광주·전남의 메가시티화 논의는 필요하다. 인구 감소 등에 따

라 결국은 뭉칠 수밖에 없다”면서도 “거대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한, 지방 메가시티는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은 축소를 거듭하다 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행정 통합 자체가 쉽지 않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020년부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이 추진 됐지만 결국은 다 좌초됐었다”면서 “수십년 전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지자체를 통합·편입하려는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으나, 실제 성공한 사례는 편입 3건, 통합 2건뿐”이라고 말했

다.

한편 이날 관련 학회 전문가, 지역 연구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성공적인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지역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메가시티 청사진을 그리는 데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메가시티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광주, 전남, 전북 3개 시도 연구원의 공동 논의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비전 선포식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무창 시의회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이 4일 광산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전남서 올 겨울 첫 ‘AI 항원’ 검출... “차단방역 강화”

고흥 오리농가... 정밀검사 도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면서 전남도가 긴급방역 상황 점검에 나섰다.

4일 고흥의 한 농가에서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전남도는 22개 시·군 부단체장

이 참여하는 방역 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강력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고흥 AI항원 검출 농장은 39일령 육용 오리 2만2000여마리를 사육 중이었다. 지난 3일 오리 폐사가 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으며, 현재 농립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고흥

원성 확진 여부는 5일 나올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는 해당 농장주로부터 신고 접수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요원 2명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했다.

곧바로 도 현장 지원관을 농장에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원인 분석 작업도 했다.

항원 검출 농장에 대해선 추가 확산 방

지를 위해 사육 중인 전체 오리를 선제적으로 살처분했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km 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 제한 조치와 함께 소독을 실시 중이다.

방역지역 내에는 다른 가금 사육 농장이 없어서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더라도 추가 확산 위험은 높지 않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겨울 철새 개체 수는 98만 5000마리로 최대 도래하는 12~1월 157만 마리 대비 62.7% 수준”이라며 “겨울

철새의 추가 도래를 고려할 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현재 어디서든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체 시·군이 경각심을 갖고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 저수지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소독할 것을 요청했다.

가금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강화, 의심 증상 발견 시 가까운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최항지 기자



세계로 울리는 아리랑

Arirang To The World

2023. 12. 08
Fri 19:30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

주최
Jindo  정선군  밀양 

주관
arirang 아리랑국제방송 全南日報

